

‘온택트 전략’으로 실적 쌓은 동양생명, 누적 순익 ‘쑥쑥’

당기순익 전년동기비 14.5% 올라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041억 거둬 보장성 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개선



동양생명 전경. /동양생명

동양생명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전년 동기보다 14.5% 오른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인 데 이어 올 3분기까지 이익 규모가 더 커졌다. 보장성 상품 중심으로 안정적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하며 눈길을 모았다.

지난해 동양생명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2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성장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6조9490억원, 1776억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무려 61%까지 오른 것이다.

동양생명의 성장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양생명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년 동기보다 무려 131.5% 뿔 2498억원에 달하면서다.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 3041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장성 수입보



동양생명이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II)’을 새롭게 선보였다.

험료 확대, 운용자산이익률 개선 등 안정적인 이익 창출 근간을 바탕으로 일회성 이익도 일부 반영되면서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대’ 원칙 아래 견고한 성장을 이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의 호실적이 이어지는 데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장성 보험 중심으

로 개선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상해·입원 등 생명과 관련한 보험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의미한다.

실제 동양생명은 보장성 보험 상품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상조서비스 제휴 혜택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는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II)’도 내놴다.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 치매(CDR1점) 100만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원, 중증 치매(CDR3점) 1000만원의 치매 진단비도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이후 지속해서 강화해온 온택트 전략도 동양생명 호실적에 힘을 보탤다.

동양생명은 최근 URL이 포함된 알림 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하거나 받아볼 수 있게 한 ‘엔젤유(U) 서비스’를 개시했다. 실시간으로 서류 확인 및 업무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한 것이다.

온택트 마케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컨택센터도 오픈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업해 고객 상담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다는 전략이다. 협약을 통해 동양생명은 ▲적립금이나 수익률과 같이 퇴직연금 관련, 고객들이 빈번하게 문의하는 단순·반복적 질문에 대한 자동화 ▲표준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신계약 체결 건에 대한 완전 판매 모니터링 ▲납입기한 통보 또는 서류 보완 안내 등과 같은 고객 안내·통지성 업무의 자동화 서비스 등을 모색하고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씨티은행과 대출자산·영업점 문제 논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회의 “인·허가 제도 정비, 신중히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과 소매금융부문 철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출자산·영업점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명령도 했다”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챙겨나가고 있고 대출자산과 영업점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미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영업점이 없지만 추가로 영업점이 폐쇄되면 고객입장에서 항풍편으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씨티은행 철수와 관련해 지방의 경우 청산완료전까지 최소한 광역시 기준으로 1개 이상 영업점을 유지해야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씨티은행과 상의해보겠다”며 “인·허가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해외사례를 보며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철수와 관련해 기업금융과 소매금융 중 한가지 영업대상을 축소해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업에 따라 폐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300만 고객이 예금·대출·카드 등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합병이나 영업양도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가 사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고 위원장은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 결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금리가 급상승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반려동물 정보 한곳에... 신한 ‘솔 펫’ 출시

고객 참여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 마련

신한은행이 반려동물을 위한 생활 플랫폼 ‘솔 펫(SOL PET)’을 신한 솔(SOL)내에 출시했다.

‘솔 펫(SOL)’은 반려동물 생활 플랫폼으로 신한솔(SOL)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먼저 고객 참여형 반려동물 커뮤니티 ‘펫스타픽’을 시작으로 향후 ▲펫(PET) 관련 윈스탑 상품·서비스 ▲보험, 적금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펫 금융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펫스타픽’은 반려동물 양육가구들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펫 커뮤니티 서비스다. 반려동물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반려동물 용품 중고장터, 반려동물 양육 정

보 등의 정보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솔 펫(SOL PET) 출시를 맞아 ‘서둘러라 집사’, ‘자랑해라 집사’, ‘또올려라 집사’ 3가지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을 게시한 선착순 4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고객 9명과 첫 1개월간 가장 많은 게시글을 올린 고객 3명에게는 180만원 상당의 펫 전문 스튜디오 촬영권 및 굿즈 패키지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6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니즈에 맞춰 솔 펫을 출시했다”며 “신한은행은 솔 펫의 생활 플랫폼화를 위해 펫푸드, 펫보험, 펫시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IBK기업銀, 사랑의 헌혈증 1004매 기부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달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모은 ‘사랑의 헌혈증 1004매’를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헌혈증 기부는 코로나19장기화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 소아암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헌혈증 기부에 앞서 전 그룹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희망자를 사전에 접수받아 IBK 금

용그룹사 임직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채혈 전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시간대별 조편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번 헌혈 행사에 참가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 릴레이 캠페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신한금융그룹

9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

신한금융그룹은 미국 다우존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DJSI 월드 지수에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사상 최초로 9년 연속 편입됐다고 16일 밝혔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이다.

신한금융은 ▲기후변화대응전략, ▲지속가능금융, ▲사회공헌등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추진 등 선도적인 ESG 활동이 인정을 받았다.

/나유리 기자

국민연금, 균형인사 공로 ‘인사혁신처 표창’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국민연금공단이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3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인사혁신처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9년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실시한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 인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메타버스에서 진행했다.

공단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는 근무 여건 조성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 관리자 양성 등 균형인사 공로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 표창’을 수상했다.

공단은 그동안 복무 제도개선과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 등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육아 문화 조성 및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복무 개선을 통해 육아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개인적 여건에 맞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도 추가 발굴해 콜센터 상담직원 13명을 채용하는 성과도 이뤘다.

리더십 특성과 과정을 신설(여성 교육자 54.0%)하고, 글로벌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국외연수(여성 62.5%) 기회도 부여했다. 그 결과 3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8%(2020년 기준)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26.4% 대비 3.4% 포인트(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백지연 기자